

2017년 IR신뢰지표 보고서

2018년 6월 18일
큐더스IR연구소

 creative
commons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큐더스IR연구소에서 매년 발표하는 신뢰지표보고서의 저작물은
CCL(Creative Commons License)조건 하에 사용을 허락합니다.

특허출원번호 : 10-2013-0137282

I. IR신뢰지표 개요

- ▶ **상장사와 투자자간의 신뢰 기반 구축과 주식 시장의 선순환적 기능 확산**
- ▶ **상장사의 IR활동을 공시에 기반하여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

(1) IR신뢰지표 제창의 배경

IR(Investor Relations)의 목적은 상장사가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사실을 근거로 상장사의 현황을 명확하게 알리고, 주식시장 내에서 상장사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 받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의 상장사들은 IR을 주가를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때로는 악의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데 이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IR신뢰지표는 상장사와 투자자간의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주식 시장의 선순환적 기능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매년 발표되는 보고서를 통해서 IR활동을 잘 하는 상장사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배경을 두고 있다.

(2) IR신뢰지표란?

<IR신뢰지표>는 국내 IR환경에서 상장사에게는 올바른 IR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상장사를 구별하고 알리며,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사와 투자자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상장사들의 IR에 대한 평가가 종종 이루어졌다. 이와 비교하여 IR신뢰지표는 상장사의 신뢰도를 해당 상장사가 자발적으로 실시한 객관적인 IR활동을 정량화하여 평가하고 있어, 철저하게 객관성을 유지하는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설문조사나 평가와는 그 기준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IR신뢰지표는 이 같은 국내 상장사의 IR활동을 기준으로 신뢰성, 적극성, 공정성(적시성 포함)이라는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전체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여 평가하고 있다.

(3) IR신뢰지표 평가 개요

IR신뢰지표는 1,974개(코스피 : 757개사, 코스닥 : 1,217개사)(2017년 12월 31일 기준 코넥스, 투자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 상장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신뢰성 부문은 2017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공시, 뉴스를 통해 공표하고 그 내용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평가이고, 적극성 부문은 2017년 한 해 동안 공시나 자사 홈페이지 및 한국 IR협회를 통해 안내된 공식적인 IR활동을 조사하여 상장사의 IR활동 형태 및 횟수를 조사하였다. 이는 투자자를 위한 적극적인 IR에 대한 평가이다. 마지막으로 공정성 부문은 IR활동을 하는 상장사가 해당 IR자료를 모든 투자자에게 공정하게 공개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이며, 추가적으로 IR활동 당일 관련 자료를 공개했는지에 대한 적시성을 평가하였다.

II. Summary

1. 신뢰성 : 전년 대비 가이드선 발표 기업 수 증가한 반면, 가이드선 달성률 감소

- 2017년 가이드선 발표 기업 163개사, 비중 8.3%. (코스피 79개사, 코스닥 84개사)
(2016년 - 147개사, (코스피 77개사, 코스닥 70개사))
- 가이드선 달성률 평균 82.6% - 코스피 87.7%, 코스닥 77.8%
(2016년 - 83.7%, (코스피 90.6%, 코스닥 76.1%))
- 가이드선 발표(매출액 기준) 기업 중 전년대비 성장을 전망한 기업 92.6%, 가이드선 달성률 평균 90.7% 기록. 반면, 역성장 전망 기업 비중 4.3%, 가이드선 달성률 평균 107.1% 기록.
- 2017년 신뢰성 부문 우수기업은 83개사, 3년 연속 22개사, 5년 연속 9개사.

2-1. 적극성 : 2017년 '상장기업 27.5%' 공식적인 IR활동 실시

- 2017년 공식적인 IR활동 기업 543개사(27.5%), 총 2,264회 실시.
(2016년 공식적인 IR활동 기업 394개사(20.8%), 총 1,695회 실시)
- CSRI 연속성 기준을 준수한 기업은 공식적인 IR활동 기업 543개사 중 36.6%인 199개사.

2017년 CSRI 연속성 준수 기업 현황

단위 : 개사, %

| 구분 | 코스피 | 코스닥 | 전체 |
|---------------|-------------|-------------|------|
| 공식IR활동 상장사 | 204 | 339 | 543 |
| CSRI 연속성 기준 | 분기별 1회/연 4회 | 반기별 1회/연 2회 | - |
| 연속성 준수 상장사 | 86 | 113 | 199 |
| 연속성 준수 상장사 비중 | 42.2 | 33.3 | 36.6 |

- 2017년 상장기업의 IR활동 평균 횟수는 4.2회. (코스피 6.7회, 코스닥 2.6회)
(2016년 - 4.3회, (코스피 6.4회, 코스닥 2.7회))
- IR활동 유형별 컨퍼런스는 증가한 반면, 컨퍼런스콜 및 NDR 감소.
- 2017년 적극성 부문 우수기업 199개사, 3년 연속 72개사, 5년 연속 45개사 조사.

2-2. 적극성 : 공식적인 IR활동 상장사 수와 활동횟수 큰 폭 증가, '역대 최고치 기록'

- 2017년 공식적인 IR활동 상장사 543개사. (코스피 204개사, 코스닥 339개사)
 - 총 IR활동 횟수 2,264회. (코스피 1,376회, 코스닥 888회)
(2016년 - 1,695회, (코스피 172개사(1,105회), 코스닥 222개사(590회)))
- 해외 IR활동 상장사 175개사. (코스피 100개사, 코스닥 75개사)
 - 총 해외 IR활동횟수 497회, 기업당 평균 2.8회
 - 해외 IR활동 기업과 활동하지 않은 기업의 최근 3개년 외국인지분율 평균 13.7%p 갭 존재.
(해외 IR활동 기업의 평균 외국인지분율 19.9% vs 미 활동 기업의 외국인지분율 6.2%)
- 지역별 활동비중은 홍콩/싱가폴 중심의 아시아(67.2%), 북미(18.7%), 유럽(12.5%) 순으로 조사.

3. 공정성 : 2017년 IR자료 공개비율 88.4%

- 2017년 IR자료 2,001건, 공개비율 88.4%. (코스피 88.4%, 코스닥 88.4%)
(2016년 : 1,538건, (코스피 89.5%, 코스닥 93.1%))
- 공개한 IR자료의 적시성 준수율 93.8%. (코스피 94.6%, 코스닥 92.6%)
- 코스피 기업은 0.7%p 하락했으나, 코스닥 기업은 10.6%p 상승.
(2016년 : 90.6%, (코스피 95.3%, 코스닥 82.0%))
- 2017년 공정성 부문 우수기업 180개사, 3년 연속 70개사, 5년 연속 34개사 조사.

4. IR신뢰지표(종합) : 2017년 CSRI 종합 우수기업 22개사

- 2017년 IR신뢰지표(CSRI 3개 부문) 종합 우수기업 총 22개사.
- 코스피 16개사, 코스닥 6개사.
- 전년과 동일. (코스피 2개사 증가, 코스닥 2개사 감소)

2017년 CSRI 종합 우수기업

단위 : 개사

| 구분 | 코스피 | 코스닥 | 전체 |
|----------|-----|-----|-----|
| 신뢰성 | 50 | 33 | 83 |
| 적극성 | 86 | 113 | 199 |
| 공정성 | 79 | 101 | 180 |
| 신뢰/적극/공정 | 16 | 6 | 22 |

III. 2017 IR 신뢰지표 결과

1. 신뢰성

조사개요

- ① 조사대상 : 전체 상장사 1,974개사.(코스피 : 757개사, 코스닥 : 1,217개사)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코넥스, 투자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
※ 2016년 1,898개사 대비 76개사 증가.(코스피 9개사 증가, 코스닥 67개사 증가)
- ② 조사기간 : 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 ③ 조사방법 : 공정공시 또는 뉴스미디어를 통해 발표된 ¹가이드스와 실제 달성률 조사/비교.
* 참고사항 : 가이드스의 기준이 회계기준을 언급하지 않은 상장사에 대해서는 과거 연도 비교수치의 회계기준을 분석하여, 2017년 회계기준을 유추하였으며, 이 조차 없는 상장사의 경우 2017년 주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
- ④ 조사항목 : 가이드스 발표 내용 중 매출액, 영업이익, 세전이익, 당기순이익에 해당하는 항목.
* 비재무적 가이드스포함.(ex.자동차업종 : 판매대수)
- ⑤ 조사결과 : 가이드스 발표 기업 163개사(+10.9% YoY)
- 코스피 79개사(+2.6% YoY), 코스닥 84개사(+20.0% YoY)
가이드스 달성률 평균 82.6%(-1.1%p YoY)
- 코스피 87.7%(-2.9%p YoY), 코스닥 77.8%(+1.7%p YoY)

¹가이드스

상장사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이해를 돕고자 제공하는 재무적(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또는 비재무적 예측·전망에 관한 정보

1) 2017년 신뢰성 결과

2017년 가이드언스를 발표한 상장사는 전체 1,974개사의 8.3%인 163개사(코스피 79개사, 코스닥 84개사)로 평균 82.6%의 달성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이드언스를 발표한 상장사는 2016년 147개사에서 2017년 163개사로 16개사가 증가했으며, 가이드언스 달성률 평균은 83.7%에서 82.6%로 1.1%p 감소했다.

가이드언스를 발표하는 상장사 수는 2010년 이후 감소 추세가 지속되다가 7년 만에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 반면, 가이드언스 달성률 평균은 2016년 역대 최고치에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가이드언스 발표 상장사 수 & 달성률 평균 현황

단위 : 개사, %

| 구분 | 2016 | 2017 |
|----------------|-------|-------|
| 전체 상장사 | 1,898 | 1,974 |
| 가이드언스 발표 상장사 수 | 147 | 163 |
| 가이드언스 달성률 평균 | 83.7 | 82.6 |

* 2017년 12월 31일, 코넥스 제외

연도별 가이드언스 발표 상장사 수 & 가이드언스 달성률 평균 추이



2017년 가이드언스를 발표한 163개 상장사의 66.3%인 108개사는 공정공시를 통해 가이드언스를 발표했으며, 2016년 대비 6.5%p 하락했다. 뉴스미디어를 통해 가이드언스를 발표한 상장사는 28.8%인 47개사로 2016년 대비 3.0%p 상승했다.

가이드언스 발표 출처

단위 : 개사, %

| 구분 | 2016 | | 2017 | |
|-------------|------|-------|------|-------|
| 전체 | 147 | 100.0 | 163 | 100.0 |
| 공정공시 | 107 | 72.8 | 108 | 66.3 |
| 뉴스미디어 | 38 | 25.9 | 47 | 28.8 |
| 공정공시와 뉴스미디어 | 2 | 1.4 | 8 | 4.9 |

* 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 코넥스 제외

2) 시장별 신뢰성 현황

코스피에서 가이드언스를 발표한 상장사는 79개사로 2016년 77개사 대비 2개사가 증가했다. 2017년 가이드언스 달성률 평균은 87.7%로 2016년 달성률 평균 90.6% 대비 2.9%p 하락했다.

코스닥에서 가이드언스를 발표한 상장사는 84개사로 2016년 70개사 대비 14개사가 증가했다. 2017년 가이드언스 달성률 평균은 77.8%로 2016년 달성률 평균 76.1% 대비 1.7%p 상승했다.

또한, 2017년 가이드언스 달성률 100% 이상을 기록한 상장사는 가이드언스를 발표한 163개사의 19.6%인 32개사로 코스피가 18개사(56.3%), 코스닥이 14개사(43.8%)였다. 전체 가이드언스 달성률 평균 이상을 달성한 상장사 비율은 63.8%로 코스피 54개사, 코스닥 50개사로 조사되었다.

즉, 가이드언스를 발표한 10개사 중 6개사는 평균 이상의 달성률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별 가이드언스 발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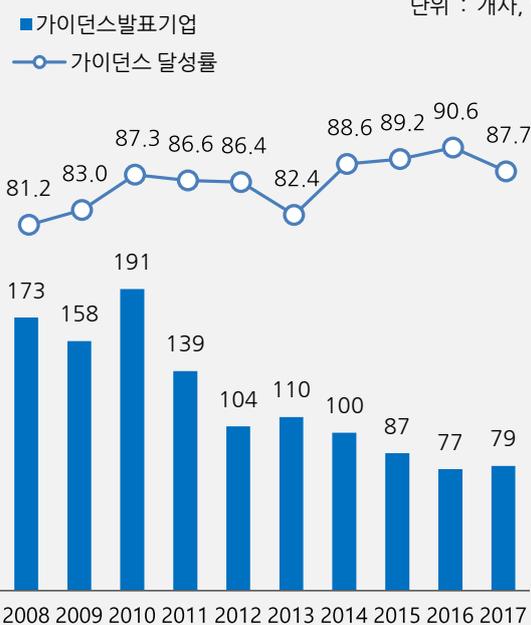
단위 : 개사, %

| 구분 | 코스피 | | 코스닥 | |
|-----------------------|-------|-------------|-------|-------------|
| | 2016년 | 2017년 | 2016년 | 2017년 |
| 가이드언스 발표 상장사 | 77 | 79 | 70 | 84 |
| 가이드언스 달성률 100% 이상 상장사 | 15 | 18 | 10 | 14 |
| 가이드언스 달성률 평균 | 90.6 | 87.7 | 76.1 | 77.8 |
| 가이드언스 달성률 평균 이상 상장사 | 53 | 54 | 42 | 50 |

코스피 시장의 2017년도 가이드언스 달성률은 최고 달성률을 기록한 2016년에 비해 소폭 하락했으며, 코스닥 시장의 2017년 가이드언스 달성률은 본 연구소가 2008년 IR신뢰지표 발표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77.8%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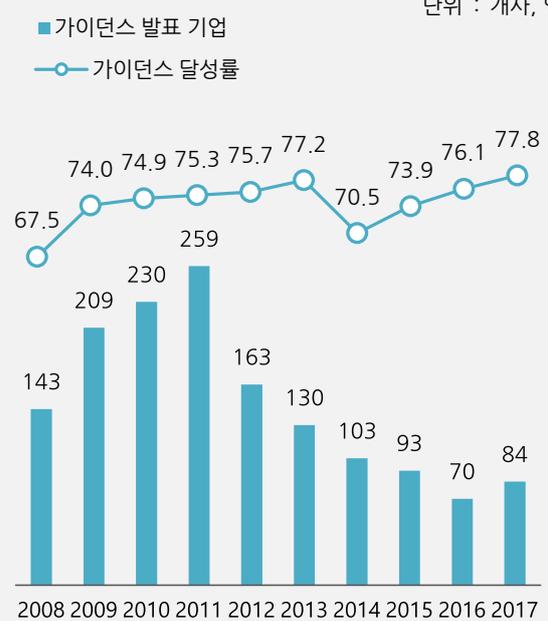
코스피

단위 :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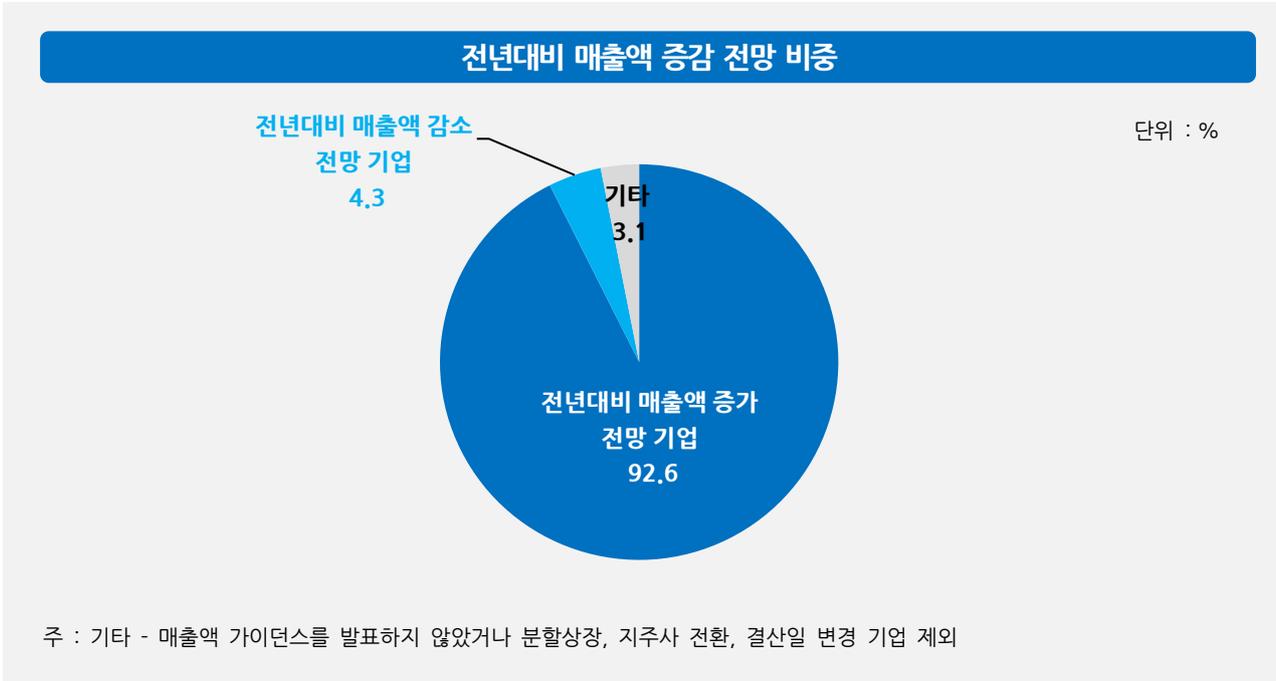
코스닥

단위 : 개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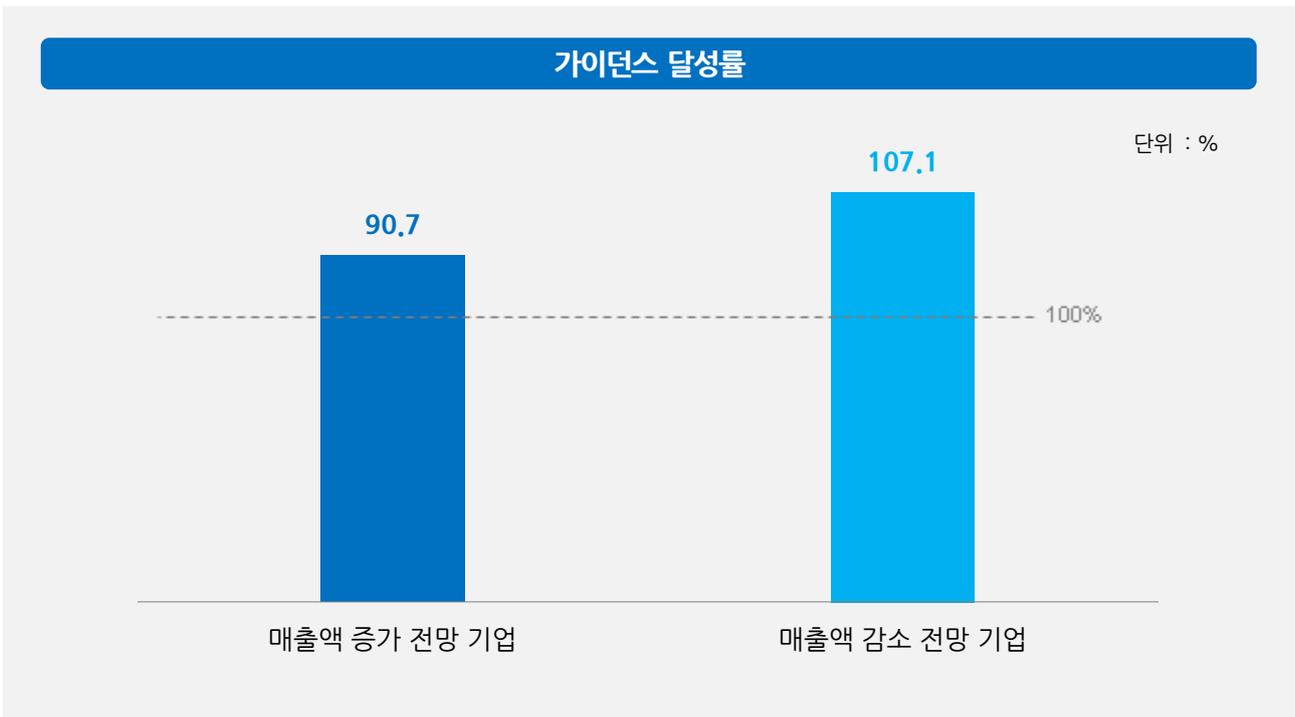


3) 기업별 매출액 전망 현황

2017년 가이드نس 발표 기업 중 2016년 대비 2017년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상장사 비중은 92.6%로 전년대비 4.2%p 상승했다. 반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상장사 비중은 4.3%로 전년대비 4.5%p 하락했다.



하지만 매출액 감소를 전망한 7개 상장사의 가이드نس 달성률은 107.1%로 매출액 증가를 전망한 151개 상장사 대비 16.4%p 높은 가이드نس 달성률을 기록했다. 지난해에 이어 매출액 증가를 전망한 상장사 수가 절대적으로 많지만 매출액 감소를 전망한 상장사의 가이드نس 달성률이 더 높았다.



4) 섹터별 신뢰성 우수기업 유형 분석

2017년 전체 가이드نس 달성을 평균 이상을 기록한 상장사의 섹터는 2016년 산업재(27.8%), 경기소비재(16.5%), IT(15.5%), 건강관리(14.4%)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역시 산업재(28.6%), 경기소비재(21.0%), IT(17.1%), 건강관리(16.2%)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2017년 가이드نس 달성을 평균 이상 섹터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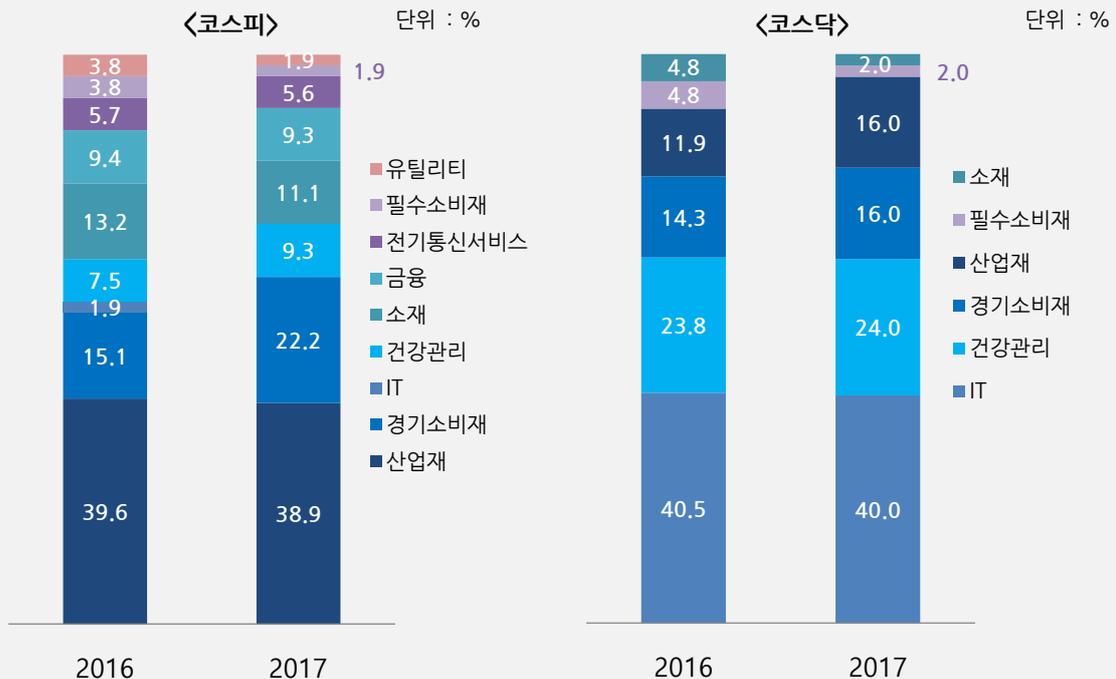
단위 : %

| 산업구분 | 2016 | | | 2017 | | |
|-------|-------|-------|-------|-------|-------|-------|
| | 코스피 | 코스닥 | 전체 | 코스피 | 코스닥 | 전체 |
| 산업재 | 39.6 | 11.9 | 27.8 | 38.9 | 16.0 | 28.6 |
| 경기소비재 | 15.1 | 14.3 | 16.5 | 22.2 | 16.0 | 21.0 |
| IT | 1.9 | 40.5 | 15.5 | 0.0 | 40.0 | 17.1 |
| 건강관리 | 7.5 | 23.8 | 14.4 | 9.3 | 24.0 | 16.2 |
| 소재 | 13.2 | 4.8 | 10.3 | 11.1 | 2.0 | 6.7 |
| 금융 | 9.4 | 0.0 | 6.2 | 9.3 | 0.0 | 4.8 |
| 전기통신 | 5.7 | 0.0 | 3.1 | 5.6 | 0.0 | 2.9 |
| 필수소비재 | 3.8 | 4.8 | 4.1 | 1.9 | 2.0 | 1.9 |
| 유틸리티 | 3.8 | 0.0 | 2.5 | 1.9 | 0.0 | 1.0 |
| 총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 2017년 가이드نس 달성을 평균. (전체 : 82.6%, 코스피 : 87.7%, 코스닥 : 77.8%)

코스피는 경기소비재, 건강관리 섹터의 기업들이 증가한 반면 산업재, IT, 소재, 금융, 전기통신,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섹터의 기업들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스닥은 건강관리, 경기소비재, 산업재 섹터의 기업들이 증가한 반면, IT, 소재, 필수소비재 섹터의 기업들이 감소했다.

시장별 가이드نس 달성을 평균 이상 상장사의 섹터 분포 변화



가이던스를 발표한 상장사 중 가이던스 달성을 100% 이상을 기록한 상장사는 총 32개사로 코스피 18개사, 코스닥 14개사로 조사되었다.

2017년 가이던스 달성을 100% 이상 상장사

| 종목명 | 시장 | 섹터 | 종목명 | 시장 | 섹터 |
|---------|----|---------|--------|----|---------|
| DB손해보험 | KS | 금융 | KG이니시스 | KQ | IT |
| JB금융지주 | KS | 금융 | 라이트론 | KQ | IT |
| LG유플러스 | KS | 전기통신서비스 | 모두투어 | KQ | 경기관련소비재 |
| LG화학 | KS | 소재 | 미코 | KQ | IT |
| SKC | KS | 소재 | 서한 | KQ | 산업재 |
| 고려아연 | KS | 소재 | 에스와이패널 | KQ | 산업재 |
| 대림산업 | KS | 산업재 | 엠씨넥스 | KQ | IT |
| 대우조선해양 | KS | 산업재 | 오리엔트정공 | KQ | 경기관련소비재 |
| 동부건설 | KS | 산업재 | 와이지-원 | KQ | 산업재 |
| 다스코 | KS | 산업재 | 웰크론 | KQ | 경기관련소비재 |
| 두산인프라코어 | KS | 산업재 | 유니셈 | KQ | IT |
| 디와이 | KS | 산업재 | 코미코 | KQ | IT |
| 디와이파워 | KS | 산업재 | 테크윙 | KQ | IT |
| 삼성물산 | KS | 산업재 | 피에스텍 | KQ | IT |
| 케이티 | KS | 전기통신서비스 | | | |
| 풍산 | KS | 소재 | | | |
| 현대미포조선 | KS | 산업재 | | | |
| 현대제철 | KS | 소재 | | | |

주1 : 산업분류 - WICS 업종 대분류 기준

주2 : 배열 순서는 기업명 오름차순 배열로 순위와 무관

5) 신뢰성 3년 연속, 5년 연속 우수기업

2017년 신뢰성 부분에서 최근 3년 연속 가이던스 달성을 90% 이상을 기록한 상장사는 2016년 20개사에서 2개사 증가한 22개사로 조사되었다. 이들 상장사 중 5년 연속 90% 이상 가이던스 달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장사는 9개사로 조사되었다.

2017년 신뢰성 3년 연속 우수 기업

단위 : %

| 종목코드 | 종목명 | 시장구분 | 업종 | 2017 | 2016 | 2015 | 평균 |
|---------|-----------|------|---------|-------|-------|-------|-------|
| A005830 | DB손해보험 ★ | KS | 금융 | 100.0 | 98.5 | 99.3 | 99.3 |
| A006360 | GS건설 | KS | 산업재 | 95.3 | 95.2 | 100.0 | 96.9 |
| A051900 | LG생활건강 ★ | KS | 경기관련소비재 | 97.3 | 100.0 | 100.0 | 99.1 |
| A032640 | LG유플러스 ★ | KS | 전기통신서비스 | 100.0 | 100.0 | 100.0 | 100.0 |
| A017670 | SK텔레콤 ★ | KS | 전기통신서비스 | 98.4 | 97.1 | 95.7 | 97.1 |
| A010130 | 고려아연 ★ | KS | 소재 | 100.0 | 99.7 | 100.0 | 99.9 |
| A009290 | 광동제약 | KS | 건강관리 | 92.6 | 97.3 | 98.0 | 96.0 |
| A000210 | 대림산업 | KS | 산업재 | 100.0 | 92.1 | 95.3 | 95.8 |
| A042660 | 대우조선해양 ★ | KS | 산업재 | 100.0 | 100.0 | 100.0 | 100.0 |
| A003490 | 대한항공 | KS | 산업재 | 98.3 | 97.8 | 96.5 | 97.5 |
| A058730 | 다스코 | KS | 산업재 | 100.0 | 100.0 | 100.0 | 100.0 |
| A013570 | 디와이 | KS | 산업재 | 100.0 | 96.0 | 95.7 | 97.2 |
| A204320 | 만도 | KS | 경기관련소비재 | 94.6 | 100.0 | 99.7 | 98.1 |
| A000810 | 삼성화재해상보험 | KS | 금융 | 99.1 | 94.3 | 96.3 | 96.6 |
| A071320 | 지역난방공사 | KS | 유틸리티 | 96.1 | 96.2 | 96.0 | 96.1 |
| A030200 | 케이티 ★ | KS | 전기통신서비스 | 100.0 | 100.0 | 92.8 | 97.6 |
| A014790 | 한라 | KS | 산업재 | 99.6 | 100.0 | 100.0 | 99.9 |
| A010620 | 현대미포조선 | KS | 산업재 | 100.0 | 93.0 | 100.0 | 97.7 |
| A017800 | 현대엘리베이터 ★ | KS | 산업재 | 96.4 | 100.0 | 100.0 | 98.8 |
| A004020 | 현대제철 ★ | KS | 소재 | 100.0 | 97.0 | 100.0 | 99.0 |
| A001450 | 현대해상 | KS | 금융 | 99.9 | 99.5 | 93.8 | 97.7 |
| A016580 | 환인제약 | KS | 건강관리 | 97.9 | 90.6 | 97.6 | 95.4 |

주1 : 배열 순서는 기업명 오름차순 배열로 순위와 무관

주2 : ★ - 5년 연속 신뢰성 우수 상장사

2. 적극성

조사개요

- ① 조사대상 : 전체 상장사 1,974개사.(코스피 : 757개사, 코스닥 : 1,217개사)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코넥스·투자회사·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
※ 2016년 대비 76개사 증가. (코스피 9개사 증가, 코스닥 67개사 증가)
- ② 조사기간 : 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 ③ 조사방법 : 공정공시 또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된 ²공식적인 IR활동을 조사.
- ④ 조사항목 : IR일정에 대한 공개 안내 이행 여부 조사.
※ 전자공시시스템 또는 공개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IR일정을 공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IR활동의 형태, 빈도수 조사.
- ⑤ 조사결과 : 공식적인 IR활동 상장사 543개사. (코스피 204개사, 코스닥 339개사)
총 활동횟수 2,264회. (코스피 1,376회, 코스닥 888회)

²공식적인 IR활동 이란?

- 실적발표회, 국내외 NDR, 증권사 컨퍼런스, 합동IR, 웹캐스팅, 컨퍼런스콜 등의 활동을 자사홈페이지 또는 공정공시를 통해 모든 투자자에게 공개하고 실시한 IR활동.

※개인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IR활동참여 기회가 적음.

비록 상장사가 IR활동에 모든 투자자들을 참여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참여가 불가능한 투자자들을 위해 공식적으로 IR활동 일정과 자료를 공유해야 함.

1) 2017년 적극성 결과

2017년 공식적인 IR활동을 실시한 상장사 수는 543개사(전체 1,974개 상장사 중 27.5%, 코스피 204개사, 코스닥 339개사)였으며, 공식적인 IR활동 횟수는 2,264회로 조사되었다.

2017년 공식적인 IR활동을 실시한 상장사 수는 543개사로, 2016년 394개사 대비 149개사 증가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공식적인 IR활동을 실시한 상장사는 204개사로 전년대비 32개사 증가했으며, 비중은 26.9%로 전년대비 3.9%p 상승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공식적인 IR활동을 실시한 상장사는 339개사로 전년대비 117개사 증가했으며, 비중은 27.9%로 전년대비 8.6%p 상승했다.

2017년 공식적인 IR활동 횟수는 2,264회로 2016년 1,695회 대비 569회 증가했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공식적인 IR활동은 총 1,376회로 전년대비 271회 증가했으며, 코스닥 상장사들의 공식적인 IR활동은 총 888회로 전년대비 298회 증가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하면, 공식적인 IR활동을 실시했던 상장사의 수는 코스닥 시장이 135개사 더 많았던 반면, 총 활동 횟수는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 대비 488회 더 많았다.

2017년 시장별 적극성 현황

단위 : 개사, 회, %

| 구분 | 코스피 | 코스닥 | 전체 |
|-----------------------|-------|-------|-------|
| 전체 상장사 | 757 | 1,217 | 1,974 |
| 공식 IR활동 상장사 | 204 | 339 | 543 |
| 공식 IR활동 상장사 비중 | 26.9 | 27.9 | 27.5 |
| 상장사 공식 IR활동 횟수 | 1,376 | 888 | 2,264 |
| 상장사 공식 IR활동 기업당 평균 횟수 | 6.7 | 2.6 | 4.2 |

2017년 공식적인 IR활동을 실시한 상장사 수와 공식적인 IR활동 횟수는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공식 IR활동 상장사 수 & 평균 횟수 추이

단위 : 개사, 회

|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전체 상장사 | 1,728 | 1,736 | 1,769 | 1,829 | 1,898 | 1,974 |
| 공식 IR활동 상장사 | 312 | 278 | 324 | 374 | 394 | 543 |
| 상장사 공식 IR활동 횟수 | 1,399 | 1,290 | 1,281 | 1,472 | 1,695 | 2,264 |
| 상장사 공식 IR활동 기업당 평균 횟수 | 4.5 | 4.6 | 4.0 | 3.9 | 4.3 | 4.2 |

공식적인 IR활동의 기업당 평균 횟수를 시장별로 비교해 보면, 코스피 시장은 2013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2016년 6.4회, 2017년 6.7회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코스닥 시장은 2015년 역대 최고

치인 2.8회를 나타낸 이후 2년 연속 소폭 감소했으나, 이는 공식적인 IR활동을 실시하는 기업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실제 코스닥 기업들의 시장소통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된다.

연도별 공식 IR활동 기업당 평균 횟수 추이

단위 : 회

|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코스피 | 6.6 | 6.6 | 5.7 | 5.2 | 6.4 | 6.7 |
| 코스닥 | 2.4 | 2.5 | 2.3 | 2.8 | 2.7 | 2.6 |

2) 해외 IR활동 추이

2017년 전체 상장사 중 해외 IR활동을 실시한 상장사 수는 175개사로 전년대비 16개사 증가했다. 코스피는 100개사로 전년대비 7개사 증가했으며, 코스닥은 75개사로 전년대비 9개사 증가했다.

해외 IR활동 총 횟수는 497회로 전년대비 19회 증가했다. 코스피는 22회 증가한 372회, 코스닥은 3회 감소한 125회로 조사되었다.

상장사 해외 IR활동 현황

단위 : 개사, 회

| 연도 구분 | 2016 | | | 2017 | | |
|-------------------|------|-----|-----|------|-----|-----|
| | 코스피 | 코스닥 | 전체 | 코스피 | 코스닥 | 전체 |
| 해외 IR활동 상장사 | 93 | 66 | 159 | 100 | 75 | 175 |
| 해외 IR활동 횟수 | 350 | 128 | 478 | 372 | 125 | 497 |
| 해외 IR활동 기업당 평균 횟수 | 3.8 | 1.9 | 3.0 | 3.7 | 1.7 | 2.8 |

최근 5년간 해외 IR활동을 실시한 상장사 수 추이를 살펴보면, 코스피는 해외 IR활동을 하는 기업수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최고치인 100개사가 해외 IR활동을 하였으며, 코스닥은 2013년부터 전반적인 증가추세로 2017년 75개사가 해외 IR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해외 IR활동 상장사 수 추이

단위 : 개사

| 구분 | 코스피 | 코스닥 | 전체 |
|------|-----|-----|-----|
| 2017 | 100 | 75 | 175 |
| 2016 | 93 | 66 | 159 |
| 2015 | 85 | 78 | 163 |
| 2014 | 85 | 55 | 140 |
| 2013 | 87 | 45 | 132 |

연도별 해외 IR활동 횟수를 살펴보면, 코스피는 최근 2년 연속 증가하며 5년래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코스닥은 2015년 최고치 기록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해외 IR활동횟수 추이

단위 : 개사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코스피 | 354 | 276 | 241 | 350 | 372 |
| 코스닥 | 90 | 97 | 151 | 128 | 125 |
| 합계 | 444 | 373 | 392 | 478 | 49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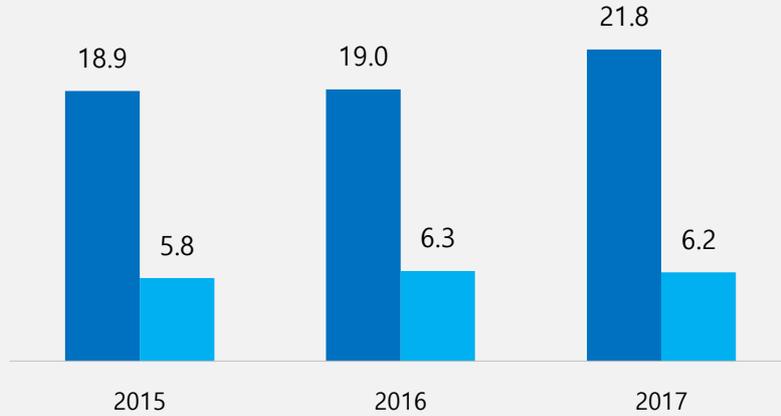
본 연구소는 해외 IR활동과 외국인 지분율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해외 IR활동을 진행한 기업과 하지 않은 기업들의 외국인 지분율 차이를 조사해 보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 IR활동을 진행한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 평균은 19.9%였으며, 해외 IR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 평균은 6.2%로 두 그룹간 13.7%p의 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해외 IR활동 유무 & 외국인 지분율 비교

■ 해외 IR활동 기업 ■ 해외 IR활동 하지 않은 기업

단위 : %



코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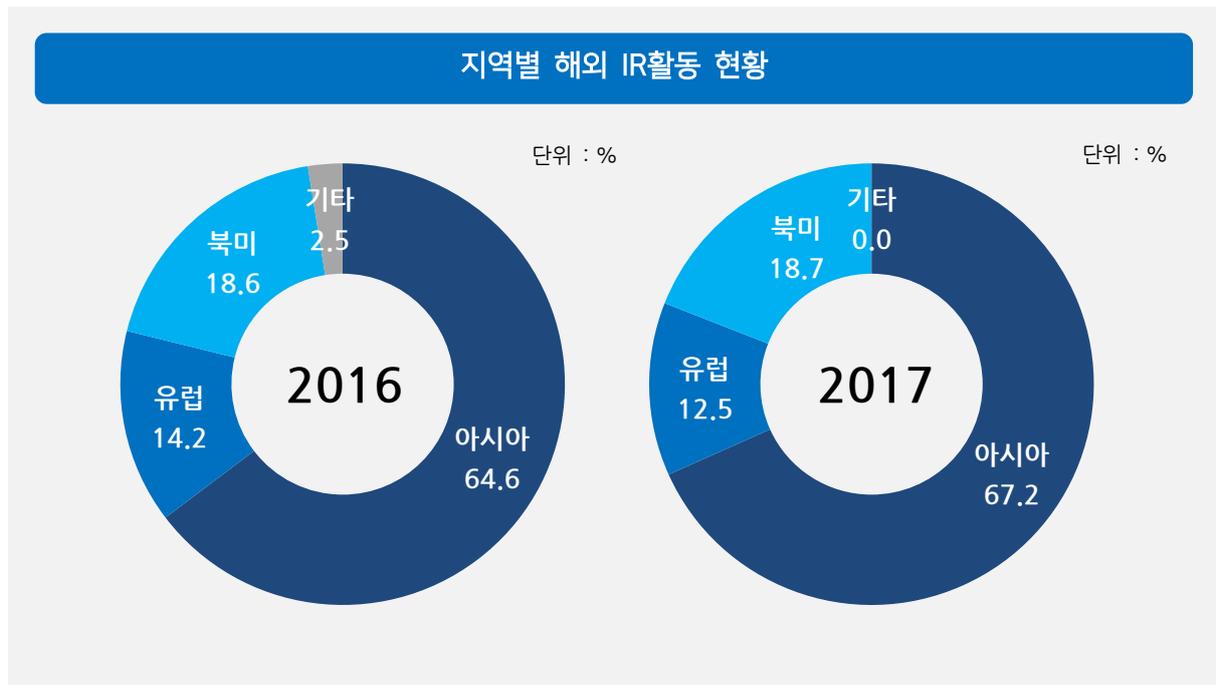
코스닥



주 : 외국인 지분율은 각 연도의 12월 말 기준의 외국인 지분율을 토대로 산출함.

2017년 상장사들이 가장 선호한 해외 IR활동 지역은 여전히 홍콩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으로, 비중은 2016년 대비 2.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럽은 14.2%에서 12.5%로 1.7%p 하락했으며, 북미는 18.6%에서 18.7%로 0.1%p 상승했다.

코스피 기업의 2017년 해외 IR활동 비중은 2016년 대비 아시아 및 북미 지역은 늘었으나 유럽 지역은 감소하였으며, 코스닥 기업의 2017년 해외IR활동 비중은 2016년 대비 아시아지역은 늘었으나 유럽 및 북미 지역은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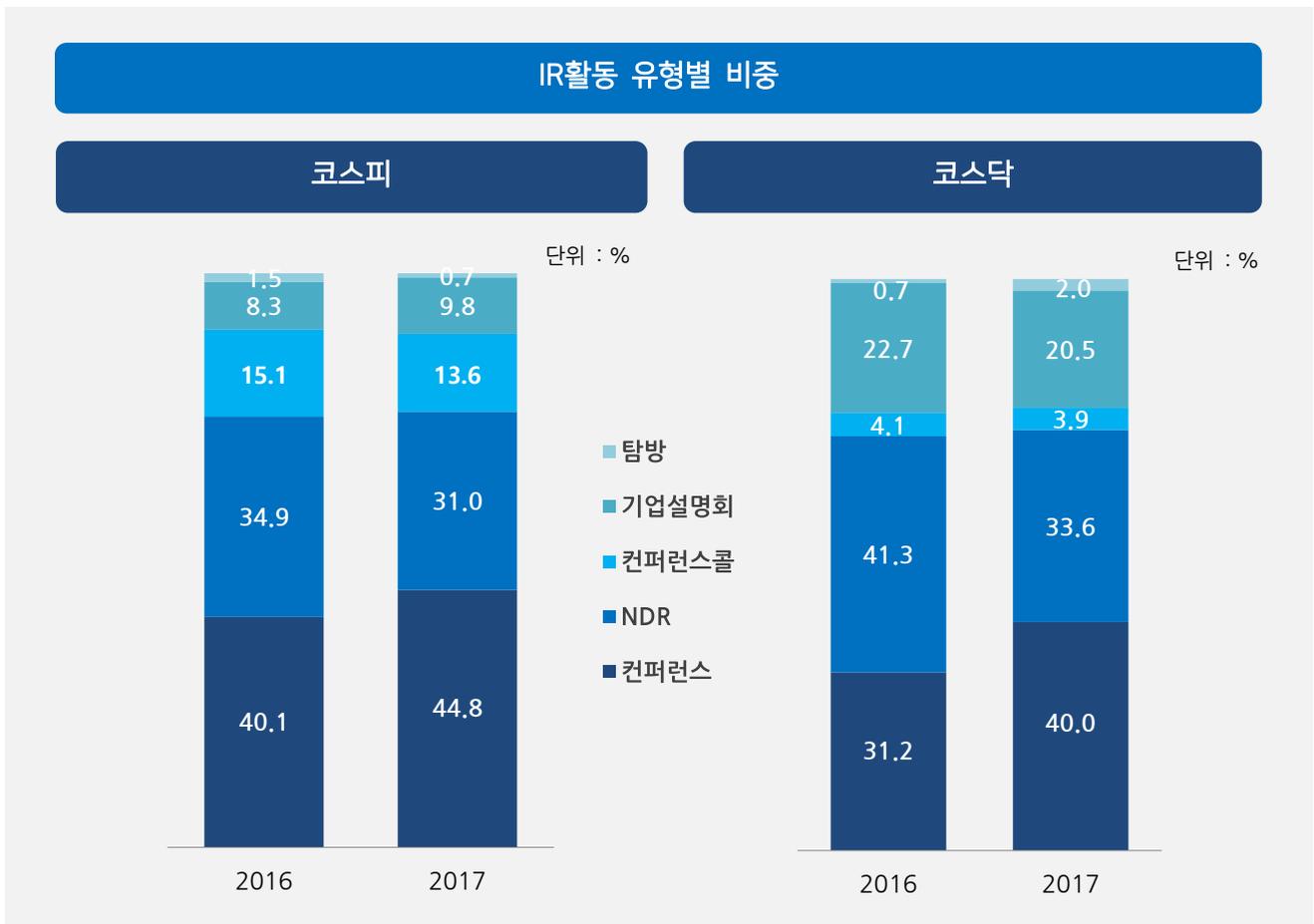
상장사 해외 IR활동 진행 지역별 비중

단위 : %

| 연도 구분 | 2016 | | | 2017 | | |
|-----------|--------------|--------------|--------------|--------------|--------------|--------------|
| | 코스피 | 코스닥 | 전체 | 코스피 | 코스닥 | 전체 |
| 아시아 | 62.6 | 70.3 | 64.6 | 64.0 | 76.8 | 67.2 |
| 유럽 | 15.1 | 11.7 | 14.2 | 14.5 | 6.4 | 12.5 |
| 북미 | 18.9 | 18.0 | 18.6 | 19.4 | 16.8 | 18.7 |
| 기타 | 3.4 | 0.0 | 2.5 | 2.2 | 0.0 | 1.6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3) IR활동 유형별 비중 변화

2017년에 IR활동의 유형을 살펴보면, 컨퍼런스 비중은 높아진 반면 컨퍼런스콜과 NDR 비중은 낮아졌다. 컨퍼런스 비중은 코스피가 4.7%p 코스닥이 8.8%p 각각 증가했으며, NDR 비중은 코스피가 3.9%p 코스닥이 7.7%p 각각 감소했다.



주 : NDR은 일대일미팅, 로드쇼, 소그룹 미팅을 포함

4) 2017년 CSRi 연속성 준수 기업 현황

본 연구소는 매년 IR활동을 진행하는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CSRi 연속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CSRi 연속성 평가는 코스피 기업이 분기 최소 1회, 코스닥 기업이 반기 최소 1회 이상 정기적인 IR활동을 진행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며, 1년간 이 기준을 준수한 기업을 CSRi 연속성 준수기업으로 선정한다.

2017년 공식적인 IR활동을 실시한 상장사 중 CSRi 연속성 준수기업은 전년대비 63개사 증가한 199개사로 조사되었다.

이를 시장 별로 구분하면, 코스피는 전년대비 20개사 증가한 86개사가 CSRi 연속성 준수기업으로 집계되었고, 코스닥은 전년대비 43개사 증가한 113개가 CSRi 연속성 준수 기업으로 큰 폭 증가했다.

CSRI 연속성 준수기업 현황

단위 : 개사, %

| 연도 | 2016 | | | 2017 | | |
|---------------|------|------|------|------|------|------|
| | 코스피 | 코스닥 | 전체 | 코스피 | 코스닥 | 전체 |
| 공식적인 IR활동 상장사 | 172 | 222 | 394 | 204 | 339 | 543 |
| 연속성 준수 상장사 | 66 | 70 | 136 | 86 | 113 | 199 |
| 연속성 준수 상장사 비중 | 38.4 | 31.5 | 34.5 | 42.2 | 33.3 | 36.6 |

CSRI 연속성 준수기업은 그 해에 정기적으로 IR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IR의 적극성이 우수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2017년 말 기준, 최근 3년간 적극성 우수기업의 지위를 유지한 기업 수는 72개사로 전년대비 7개사가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적극성 우수기업의 지위를 유지한 기업 수는 45개사로 전년과 동일하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최근 3년 연속 적극성 우수기업의 지위를 유지한 기업은 51개사로 5개사가 증가했으며, 최근 5년 연속 적극성 우수기업의 지위를 유지한 기업은 37개사로 1개사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 3년 연속 적극성 우수기업의 지위를 유지한 기업은 21개사로 2개사가 증가했으며, 최근 5년 연속 적극성 우수기업의 지위를 유지한 기업은 8개사로 1개사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CSRI 연속성 준수기업 중 적극성 우수기업 비중

단위 : 개사, %

| 연도 | 2016 | | | 2017 | | |
|-----------------|------|------|------|------|------|------|
| | 코스피 | 코스닥 | 전체 | 코스피 | 코스닥 | 전체 |
| 연속성 준수 상장사 | 66 | 70 | 136 | 86 | 113 | 199 |
| 적극성 우수기업(3년) | 46 | 19 | 65 | 51 | 21 | 72 |
| 적극성 우수기업(3년) 비중 | 69.7 | 27.1 | 47.8 | 59.3 | 18.6 | 36.2 |
| 적극성 우수기업(5년) | 36 | 9 | 45 | 37 | 8 | 45 |
| 적극성 우수기업(5년) 비중 | 54.5 | 12.9 | 33.1 | 43.0 | 7.1 | 22.6 |

5) 적극성 우수기업 현황(2017년 3년 연속, 5년 연속)

| 코 스 피 | | | | | |
|-------|-----------|----|------------|----|-------------|
| 1 | BGF | 18 | SK텔레콤 ★ | 35 | 케이티 ★ |
| 2 | BNK금융지주 ★ | 19 | SK하이닉스 ★ | 36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 |
| 3 | CJ CGV | 20 | 기아자동차 ★ | 37 | 케이티앤지 ★ |
| 4 | CJ대한통운 | 21 | 대림산업 ★ | 38 | 코오롱인더 ★ |
| 5 | CJ제일제당 | 22 | 동양생명 ★ | 39 | 포스코대우 |
| 6 | DB손해보험 ★ | 23 | 롯데쇼핑 ★ | 40 | 하나금융지주 |
| 7 | KB금융 ★ | 24 | 롯데케미칼 ★ | 41 | 하나투어 ★ |
| 8 | LG디스플레이 ★ | 25 | 삼성SDI | 42 | 한국전력공사 ★ |
| 9 | LG유플러스 ★ | 26 | 삼성생명 ★ | 43 | 한화생명 ★ |
| 10 | LG전자 ★ | 27 | 삼성전기 ★ | 44 | 한화케미칼 |
| 11 | LG화학 ★ | 28 | 삼성전자 ★ | 45 | 현대글로벌비스 ★ |
| 12 | LS산전 | 29 | 삼성카드 ★ | 46 | 현대로템 |
| 13 | NAVER ★ | 30 | 삼성화재해상보험 ★ | 47 | 현대모비스 ★ |
| 14 | NHN엔터테인먼트 | 31 | 신한지주 ★ | 48 | 현대위아 ★ |
| 15 | OCI | 32 | 쌍용자동차 | 49 | 현대제철 ★ |
| 16 | SKC ★ | 33 | 엔씨소프트 ★ | 50 | 현대중공업 |
| 17 | SK이노베이션 ★ | 34 | 카카오 ★ | 51 | 현대자동차 ★ |
| 코 스 닥 | | | | | |
| 1 | CJ E&M ★ | 8 | 루트로닉 | 15 | 아프리카TV |
| 2 | GS홈쇼핑 | 9 | 모두투어 ★ | 16 | 에프엔씨엔터 |
| 3 | NEW | 10 | 서울반도체 ★ | 17 | 오이솔루션 |
| 4 | SKC코오롱PI | 11 | 성광벤드 ★ | 18 | 차바이오텍 |
| 5 | SK바이오랜드 | 12 | 심텍홀딩스 ★ | 19 | 칩스앤미디어 |
| 6 | 게임빌 ★ | 13 | 씨젠 ★ | 20 | 카카오M |
| 7 | 레고컴바이오 | 14 | 아이센스 ★ | 21 | 태광 |

주1 : 배열 순서는 기업명 오름차순 배열로 순위와 무관

주2 : ★ - 5년 연속 적극성 우수 상장사

3. 공정성

조사개요

- ① 조사대상 : 전체 상장사 1,974개사(코스피 : 757개사, 코스닥 : 1,217개사) 중 공식적인 IR활동한 543개사.
 -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코넥스, 투자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
 - * 공식적 IR활동 : 공시와 홈페이지를 통한 상장사 IR활동 정보 발표.
- ② 조사기간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③ 조사방법 : 공식적인 IR활동에 사용된 IR자료 조사. (상장사 홈페이지 및 공시사이트)
- ④ 조사항목
 - 공정성 : 공식적인 IR활동에 사용된 자료의 공개 유·무 조사.
 - 적시성 : IR활동일과 IR자료의 게시시점 비교 조사.
- ⑤ 조사결과 : IR자료 공개 건수 2,001건, (코스피 1,216건, 코스닥 785건)
IR자료 공개 비율 88.4%, (코스피 88.4%, 코스닥 88.4%)

공정공시제도의 개념

- 공정공시제도는 상장기업 또는 그 대리인 등이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 기업 정보를 전문 투자자 등 특정인들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공 전에 동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정공시제도의 취지와 기능

- 공정공시제도는 일반투자자 등 모든 투자자들이 상장기업의 중요정보에 대해 공평하게 접근하도록 하여 투자자들간 정보의 불균형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수시공시제도의 보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공시 시한

- 공정공시의무가 있는 경우, 상장법인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선별 제공하기 전까지 거래소를 통해 공시하면 되나, 정보 제공시점의 최소 10분전까지 신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출처 : 코스피 시장 공시제도 가이드

1) 2017년 공정성 결과

2017년 공식적인 IR활동에 대한 자료를 공개한 건수는 전체 2,264회 중 2,001건이었으며, 공개비율은 88.4%로 조사되었다.

2016년과 비교하면, 자료공개 건수는 1,538건에서 2,001건으로 463건이 증가했으나, 공개비율은 90.7%에서 88.4%로 2.3%p 감소했다.

시장별로 구분하면, 코스피 기업의 자료공개 건수는 989건에서 1,216건으로 227건이 증가했으며, 공개비율은 88.4%로 2016년 공개비율 89.5% 대비 1.1%p 감소했다.

코스닥 기업의 자료공개 건수는 549건에서 785건으로 236건이 증가했고, 공개비율은 88.4%로 2016년 공개비율 93.1% 대비 4.7%p 감소했다.

2017년 공정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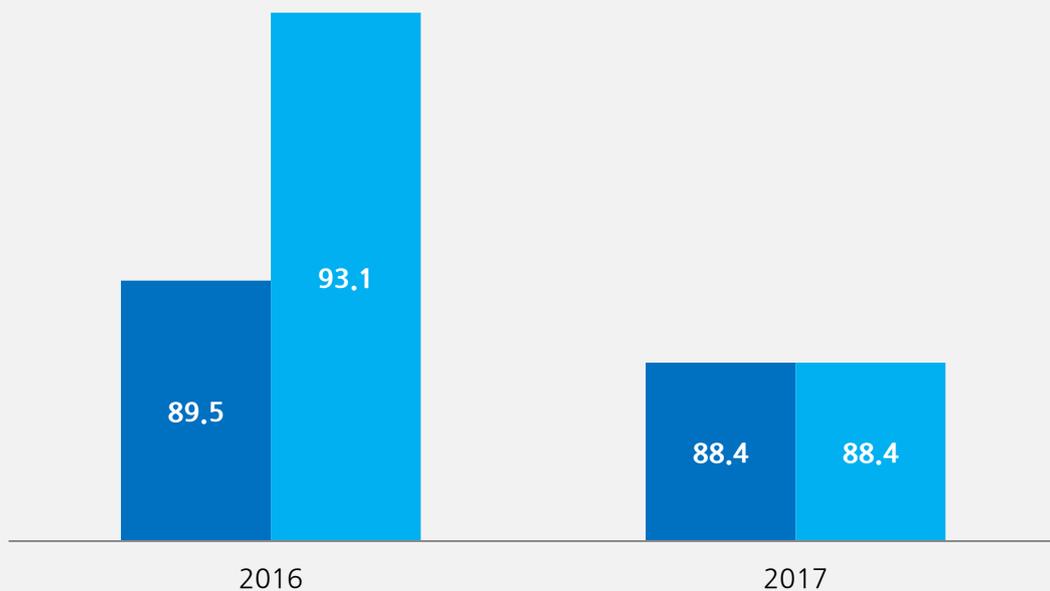
단위 : 건, %

| 구분 | 코스피 | 코스닥 | 전 체 |
|---------------|-------|------|-------|
| 공식 IR활동 횟수 | 1,376 | 888 | 2,264 |
| 관련 IR자료 공개 횟수 | 1,216 | 785 | 2,001 |
| IR자료 공개비율 | 88.4 | 88.4 | 88.4 |

시장별 IR정보 공개비율

■ 코스피
■ 코스닥

단위 : %



2) 2017년 적시성 결과

IR정보를 공개한 2,001건의 공정성 조사에서 실제 자료를 발표한 시점을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3.2%p 상승한 93.8%가 IR활동 당일 또는 이전에 IR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스피 기업은 94.6%, 코스닥 기업은 92.6%가 적시성을 준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 적시성 현황

단위 : 건, %

| 구분 | 코스피 | 코스닥 | 전체 |
|---------------------|-------------|-------------|-------------|
| 관련 IR자료 공개 건수 | 1,216 | 785 | 2,001 |
| IR활동 당일 또는 이전 공개 건수 | 1,150 | 727 | 1,877 |
| IR자료 적시성비율 | 94.6 | 92.6 | 93.8 |

주 : 적시성은 IR활동 당일 관련 자료 공개에 대한 평가

3) 공정성 우수기업 현황(3년 연속, 5년 연속)

공정성 부분 3년 연속 우수기업은 코스피 49개사, 코스닥 21개사로 조사되었다.

이들 상장사 중 5년 연속 ³공정성 우수기업은 코스피 30개사, 코스닥 4개사로 조사되었다.

| 코스피 | | | | | |
|-----|-----------|----|-------------|----|-----------|
| 1 | BGF | 18 | SK하이닉스 ★ | 35 | 케이티앤지 ★ |
| 2 | BNK금융지주 ★ | 19 | 기아자동차 ★ | 36 | 코오롱인더 ★ |
| 3 | CJ CGV | 20 | 동양생명 | 37 | 포스코대우 |
| 4 | CJ대한통운 | 21 | 롯데쇼핑 ★ | 38 | 하나금융지주 |
| 5 | CJ제일제당 | 22 | 롯데케미칼 | 39 | 하나투어 |
| 6 | KB금융 ★ | 23 | 삼성SDI | 40 | 한국전력공사 |
| 7 | LG디스플레이 ★ | 24 | 삼성생명 | 41 | 한화생명 ★ |
| 8 | LG유플러스 ★ | 25 | 삼성전기 ★ | 42 | 한화케미칼 |
| 9 | LG전자 ★ | 26 | 삼성전자 ★ | 43 | 현대글로벌비스 ★ |
| 10 | LG화학 ★ | 27 | 삼성카드 ★ | 44 | 현대로템 |
| 11 | LS산전 | 28 | 삼성화재해상보험 ★ | 45 | 현대모비스 ★ |
| 12 | NAVER ★ | 29 | 신한지주 ★ | 46 | 현대위아 ★ |
| 13 | NHN엔터테인먼트 | 30 | 쌍용자동차 | 47 | 현대제철 ★ |
| 14 | OCI | 31 | 엔씨소프트 ★ | 48 | 현대중공업 |
| 15 | SKC ★ | 32 | 카카오 ★ | 49 | 현대자동차 ★ |
| 16 | SK이노베이션 ★ | 33 | 케이티 ★ | | |
| 17 | SK텔레콤 ★ | 34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 | | |

³ 공정성 우수 상장사 조사 기준

- 1) 코스피 : 분기별 IR활동에 따른 IR자료를 연속으로 공개한 상장사
- 2) 코스닥 : 반기별 IR활동에 따른 IR자료를 연속으로 공개한 상장사

| 코스닥 | | | | | |
|-----|----------|----|---------|----|--------|
| 1 | CJ E&M ★ | 8 | 루트로닉 | 15 | 아프리카TV |
| 2 | GS홈쇼핑 | 9 | 모두투어 ★ | 16 | 에프엔씨엔터 |
| 3 | NEW | 10 | 서울반도체 ★ | 17 | 오이솔루션 |
| 4 | SKC코오롱PI | 11 | 성광벤드 | 18 | 차바이오텍 |
| 5 | SK바이오랜드 | 12 | 심텍홀딩스 | 19 | 칩스앤미디어 |
| 6 | 게임빌 ★ | 13 | 씨젠 | 20 | 카카오M |
| 7 | 레고켐바이오 | 14 | 아이센스 | 21 | 태광 |

주1 : 배열 순서는 기업명 오름차순 배열로 순위와 무관

주2 : ★ - 5년 연속 공정성 우수 상장사

4. IR 신뢰지표(종합) : 2017 년 CSRI 종합 우수기업 22 개사

2017 CSRI 평가항목 신뢰성, 적극성, 공정성 3개 부문에서 종합 우수기업으로 조사된 기업은 총 22개 사이며, 코스피는 16개사로 2016년 14개사에서 2개사 증가했고, 코스닥은 6개사로 2016년 8개사에서 2개사 감소했다. 이들 상장사 중 3년 연속 CSRI 종합 우수기업은 5개사이며, 모두 코스피 기업으로 조사되었다.

| 코스피 | | | | | |
|-----|----------|----|------------|----|--------|
| 1 | JB금융지주 | 7 | 대림산업 | 13 | 케이티앤지 |
| 2 | LG생활건강 | 8 | 덴티움 | 14 | 코웨이 |
| 3 | LG유플러스 ★ | 9 | 동양생명 | 15 | 포스코대우 |
| 4 | LG화학 | 10 | 삼성화재해상보험 ★ | 16 | 현대제철 ★ |
| 5 | SKC | 11 | 이마트 | | 케이티앤지 |
| 6 | SK텔레콤 ★ | 12 | 케이티 ★ | | |

| 코스닥 | | | | | |
|-----|------|---|----------|---|-------|
| 1 | 모두투어 | 3 | 에스와이패널 | 5 | 유아이엘 |
| 2 | 미코 | 4 | 오가닉티코스메틱 | 6 | 파워로직스 |

주1 : 배열 순서는 기업명 오름차순 배열로 순위와 무관

주2 : ★ - 3년 연속 우수 상장사

별첨1. 2017년 신뢰성 우수기업

| 코 스 피 | | | | | |
|-------|---------|----|----------|----|-----------|
| 1 | DB손해보험 | 18 | 두산 | 35 | 코웨이 |
| 2 | GS건설 | 19 | 두산인프라코어 | 36 | 태영건설 |
| 3 | JB금융지주 | 20 | 두울 | 37 | 포스코 |
| 4 | LG생활건강 | 21 | 디와이 | 38 | 포스코대우 |
| 5 | LG유플러스 | 22 | 디와이파워 | 39 | 풍산 |
| 6 | LG화학 | 23 | 만도 | 40 | 한라 |
| 7 | SKC | 24 | 삼성물산 | 41 | 한섬 |
| 8 | SK텔레콤 | 25 | 삼성화재해상보험 | 42 | 한세실업 |
| 9 | 고려아연 | 26 | 신일산업 | 43 | 한세에스24홀딩스 |
| 10 | 광동제약 | 27 | 아시아나항공 | 44 | 한신공영 |
| 11 | 다스코 | 28 | 에스원 | 45 | 한온시스템 |
| 12 | 대림산업 | 29 | 유나이티드 | 46 | 현대미포조선 |
| 13 | 대우조선해양 | 30 | 이마트 | 47 | 현대엘리베이터 |
| 14 | 대한항공 | 31 | 지역난방공사 | 48 | 현대제철 |
| 15 | 덴티움 | 32 | 케이티 | 49 | 현대해상 |
| 16 | 동부건설 | 33 | 케이티앤지 | 50 | 환인제약 |
| 17 | 동양생명 | 34 | 코오롱글로벌 | | |
| 코 스 닥 | | | | | |
| 1 | KG모빌리언스 | 12 | 서한 | 23 | 유니셈 |
| 2 | KG이니시스 | 13 | 셀트리온 | 24 | 유아이엘 |
| 3 | 골든센츄리 | 14 | 에스와이패널 | 25 | 육일씨엔에스 |
| 4 | 덕신하우징 | 15 | 엠씨넥스 | 26 | 케이피에프 |
| 5 | 라이트론 | 16 | 영인프린티어 | 27 | 코미코 |
| 6 | 마크로젠 | 17 | 오가닉티코스메틱 | 28 | 타이거일렉 |
| 7 | 모두투어 | 18 | 오리엔트정공 | 29 | 테크윙 |
| 8 | 모트렉스 | 19 | 오스템임플란트 | 30 | 파마리서치프로덕트 |
| 9 | 미코 | 20 | 와이지-원 | 31 | 파워로직스 |
| 10 | 바이오톡스텍 | 21 | 웰크론 | 32 | 팬스타엔터프라이즈 |
| 11 | 백금T&A | 22 | 원스 | 33 | 피에스텍 |

별첨2. 2017년 적극성 우수기업

| 코스피 | | | | | |
|-----|-----------|----|----------|----|-----------|
| 1 | BGF | 30 | 금호산업 | 59 | 제이준코스메틱 |
| 2 | BNK금융지주 | 31 | 기아자동차 | 60 | 제주항공 |
| 3 | CJ CGV | 32 | 기업은행 | 61 | 카카오 |
| 4 | CJ대한통운 | 33 | 대교 | 62 | 케이티 |
| 5 | CJ제일제당 | 34 | 대림산업 | 63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
| 6 | DB손해보험 | 35 | 덴티움 | 64 | 케이티앤지 |
| 7 | DGB금융지주 | 36 | 동국제강 | 65 | 코스맥스 |
| 8 | GKL | 37 | 동양생명 | 66 | 코오롱인더 |
| 9 | HDC아이콘트롤스 | 38 | 롯데쇼핑 | 67 | 코웨이 |
| 10 | JB금융지주 | 39 | 롯데케미칼 | 68 | 팬오션 |
| 11 | KB금융 | 40 | 롯데하이마트 | 69 | 포스코대우 |
| 12 | LG디스플레이 | 41 | 미래에셋대우 | 70 | 하나금융지주 |
| 13 | LG생활건강 | 42 | 미래에셋생명 | 71 | 하나투어 |
| 14 | LG유플러스 | 43 | 삼성SDI | 72 | 한국전력공사 |
| 15 | LG이노텍 | 44 | 삼성생명 | 73 | 한전KPS |
| 16 | LG전자 | 45 | 삼성전기 | 74 | 한화 |
| 17 | LG화학 | 46 | 삼성전자 | 75 | 한화생명 |
| 18 | LS산전 | 47 | 삼성카드 | 76 | 한화케미칼 |
| 19 | LS전선아시아 | 48 | 삼성화재해상보험 | 77 | 한스코퍼레이션 |
| 20 | NAVER | 49 | 신한지주 | 78 | 현대글로벌비스 |
| 21 | NHN엔터테인먼트 | 50 | 쌍용자동차 | 79 | 현대로템 |
| 22 | NH투자증권 | 51 | 엔씨소프트 | 80 | 현대모비스 |
| 23 | OCI | 52 | 엔에스쇼핑 | 81 | 현대위아 |
| 24 | SKC | 53 | 우리은행 | 82 | 현대제철 |
| 25 | SK디스커버리 | 54 | 웅진씽크빅 | 83 | 현대중공업 |
| 26 | SK이노베이션 | 55 | 유한양행 | 84 | 현대자동차 |
| 27 | SK텔레콤 | 56 | 이노션 | 84 | 화승엔터프라이즈 |
| 28 | SK하이닉스 | 57 | 이마트 | 86 | 화승인더스트리 |
| 29 | S-Oil | 58 | 일동제약 | | |

코스닥

| | | | | | |
|----|----------------|----|----------|-----|----------|
| 1 | AP위성 | 39 | 서울반도체 | 77 | 이엠텍 |
| 2 | CJ E&M | 40 | 성광벤드 | 78 | 이테크건설 |
| 3 | CJ프레시웨이 | 41 | 슈프리마 | 79 | 인선이엔티 |
| 4 | GRT | 42 | 신라젠 | 80 | 인크로스 |
| 5 | GS홈쇼핑 | 43 | 심텍 | 81 | 인터로조 |
| 6 | ISC | 44 | 심텍홀딩스 | 82 | 인터파크 |
| 7 | NEW | 45 | 썸에이지 | 83 | 잉글우드랩 |
| 8 | SBI핀테크솔루션즈 | 46 | 썬트렉아이 | 84 | 제노포커스 |
| 9 | SKC코오롱PI | 47 | 셀바이오텍 | 84 | 주성엔지니어링 |
| 10 | SK바이오랜드 | 48 | 씨젠 | 86 | 지스마트글로벌 |
| 11 | SM Life Design | 49 | 아모텍 | 87 | 진성티이씨 |
| 12 | 강스템바이오텍 | 50 | 아바텍 | 88 | 차바이오텍 |
| 13 | 게임빌 | 51 | 아비코전자 | 89 | 칩스앤미디어 |
| 14 | 고영 | 52 | 아이센스 | 90 | 카카오M |
| 15 | 골든센츄리 | 53 | 아프리카TV | 91 | 컴투스 |
| 16 | 기가레인 | 54 | 알테오젠 | 92 | 코스메카코리아 |
| 17 | 나스미디어 | 55 | 에스에프에이 | 93 | 콜마비엔에이치 |
| 18 | 나이백 | 56 | 에스와이패널 | 94 | 크리스탈신소재 |
| 19 | 농우바이오 | 57 | 에이치시티 | 95 | 클리오 |
| 20 | 대명코퍼레이션 | 58 | 에프엔씨엔터 | 96 | 탑엔지니어링 |
| 21 | 대한광통신 | 59 | 엑세스바이오 | 97 | 태광 |
| 22 | 더블유게임즈 | 60 | 엑시콘 | 98 | 테고사이언스 |
| 23 | 덕산네오룩스 | 61 | 엔지스테크놀러지 | 99 | 파워로직스 |
| 24 | 동국산업 | 62 | 엘아이에스 | 100 | 파인텍 |
| 25 | 디엠씨 | 63 | 엘오티베콤 | 101 | 파크시스템스 |
| 26 | 디티앤씨 | 64 | 엠케이전자 | 102 | 펍트론 |
| 27 | 레고캠바이오 | 65 | 연우 | 103 | 포스코 ICT |
| 28 | 레이언스 | 66 | 오가닉티코스메틱 | 104 | 퓨전데이터 |
| 29 | 루트로닉 | 67 | 오르비텍 | 105 | 퓨처켄 |
| 30 | 메지온 | 68 | 오이솔루션 | 106 | 프로스테믹스 |
| 31 | 모두투어 | 69 | 와이지-원 | 107 | 필링크 |
| 32 | 모바일어플라이언스 | 70 | 원익IPS | 108 | 하이비전시스템 |
| 33 | 미코 | 71 | 원익머트리얼즈 | 109 | 하이즈항공 |
| 34 | 민앤지 | 72 | 웨이브일렉트로 | 110 | 한스바이오메드 |
| 35 | 바이로메드 | 73 | 우리은행 | 111 | 해마로푸드서비스 |
| 36 | 바텍 | 74 | 웅진씽크빅 | 112 | 휴온스 |
| 37 | 브레인콘텐츠 | 75 | 유한양행 | 113 | 흥국에프엔비 |
| 38 | 삼기오토모티브 | 76 | 육일씨엔에스 | | |

별첨3. 2017년 공정성 우수기업

| 코스피 | | | | | |
|-----|-----------|----|----------|----|-----------|
| 1 | BGF | 28 | 기아자동차 | 55 | 제이준코스메틱 |
| 2 | BNK금융지주 | 29 | 기업은행 | 56 | 제주항공 |
| 3 | CJ CGV | 30 | 대교 | 57 | 카카오 |
| 4 | CJ대한통운 | 31 | 대림산업 | 58 | 케이티 |
| 5 | CJ제일제당 | 32 | 덴티움 | 59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
| 6 | DGB금융지주 | 33 | 동국제강 | 60 | 케이티앤지 |
| 7 | GKL | 34 | 동양생명 | 61 | 코스맥스 |
| 8 | JB금융지주 | 35 | 롯데쇼핑 | 62 | 코오롱인더 |
| 9 | KB금융 | 36 | 롯데케미칼 | 63 | 코웨이 |
| 10 | LG디스플레이 | 37 | 미래에셋대우 | 64 | 팬오션 |
| 11 | LG생활건강 | 38 | 미래에셋생명 | 65 | 포스코대우 |
| 12 | LG유플러스 | 39 | 삼성SDI | 66 | 하나금융지주 |
| 13 | LG이노텍 | 40 | 삼성생명 | 67 | 하나투어 |
| 14 | LG전자 | 41 | 삼성전기 | 68 | 한국전력공사 |
| 15 | LG화학 | 42 | 삼성전자 | 69 | 한전KPS |
| 16 | LS산전 | 43 | 삼성카드 | 70 | 한화 |
| 17 | LS전선아시아 | 44 | 삼성화재해상보험 | 71 | 한화생명 |
| 18 | NAVER | 45 | 신한지주 | 72 | 한화케미칼 |
| 19 | NHN엔터테인먼트 | 46 | 쌍용자동차 | 73 | 현대글로비스 |
| 20 | NH투자증권 | 47 | 엔씨소프트 | 74 | 현대로템 |
| 21 | OCI | 48 | 엔에스쇼핑 | 75 | 현대모비스 |
| 22 | SKC | 49 | 우리은행 | 76 | 현대위아 |
| 23 | SK디스커버리 | 50 | 웅진씽크빅 | 77 | 현대제철 |
| 24 | SK이노베이션 | 51 | 유한양행 | 78 | 현대중공업 |
| 25 | SK텔레콤 | 52 | 이노션 | 79 | 현대자동차 |
| 26 | SK하이닉스 | 53 | 이마트 | | |
| 27 | S-Oil | 54 | 일동제약 | | |

| 코스닥 | | | | | |
|-----|------------|----|----------|-----|----------|
| 1 | CJ E&M | 35 | 성광벤드 | 69 | 인선이엔티 |
| 2 | CJ프레시웨이 | 36 | 슈프리마 | 70 | 인크로스 |
| 3 | GRT | 37 | 신라젠 | 71 | 인터로조 |
| 4 | GS홈쇼핑 | 38 | 심텍 | 72 | 인터파크 |
| 5 | ISC | 39 | 심텍홀딩스 | 73 | 제노포커스 |
| 6 | NEW | 40 | 썸에이지 | 74 | 주성엔지니어링 |
| 7 | SBI핀테크솔루션즈 | 41 | 썬트렉아이 | 75 | 지스마트글로벌 |
| 8 | SKC코오롱PI | 42 | 셀바이오텍 | 76 | 진성티이씨 |
| 9 | SK바이오랜드 | 43 | 씨젠 | 77 | 차바이오텍 |
| 10 | 강스템바이오텍 | 44 | 아비코전자 | 78 | 칩스앤미디어 |
| 11 | 게임빌 | 45 | 아이센스 | 79 | 카카오M |
| 12 | 고영 | 46 | 아프리카TV | 80 | 컴투스 |
| 13 | 기가레인 | 47 | 알테오젠 | 81 | 코스메카코리아 |
| 14 | 나스미디어 | 48 | 에스에프에이 | 82 | 콜마비엔에이치 |
| 15 | 나이백 | 49 | 에스와이패널 | 83 | 크리스탈신소재 |
| 16 | 농우바이오 | 50 | 에이치시티 | 84 | 클리오 |
| 17 | 대명코퍼레이션 | 51 | 에프엔씨엔터 | 84 | 탑엔지니어링 |
| 18 | 대한광통신 | 52 | 엑세스바이오 | 86 | 태광 |
| 19 | 더블유게임즈 | 53 | 엑시콘 | 87 | 테고사이언스 |
| 20 | 덕산네오룩스 | 54 | 엘아이에스 | 88 | 파워로직스 |
| 21 | 동국산업 | 55 | 엘오티베콤 | 89 | 파인텍 |
| 22 | 디엠씨 | 56 | 엠케이전자 | 90 | 파크시스템스 |
| 23 | 레고컴바이오 | 57 | 연우 | 91 | 펍트론 |
| 24 | 레이언스 | 58 | 오가닉티코스메틱 | 92 | 퓨전데이터 |
| 25 | 루트로닉 | 59 | 오르비텍 | 93 | 퓨처캠 |
| 26 | 메지온 | 60 | 오이솔루션 | 94 | 프로스테믹스 |
| 27 | 모두투어 | 61 | 원익IPS | 95 | 필링크 |
| 28 | 모바일어플라이언스 | 62 | 원익머트리얼즈 | 96 | 하이비전시스템 |
| 29 | 미코 | 63 | 웨이브일렉트로 | 97 | 하이즈항공 |
| 30 | 바이로메드 | 64 | 위메이드 | 98 | 한스바이오메드 |
| 31 | 바텍 | 65 | 유니슨 | 99 | 해마로푸드서비스 |
| 32 | 브레인콘텐츠 | 66 | 유아이엘 | 100 | 휴온스 |
| 33 | 삼기오토모티브 | 67 | 이엠텍 | 101 | 흥국에프엔비 |
| 34 | 서울반도체 | 68 | 이테크건설 | | |